

FA컵서 '멀티골' 손흥민 평점 9점대

잉글랜드축구협회(FA)컵에서 멀티골로 골 갈증을 푼 손흥민(31·토트넘)이 팀 내 최고 평점을 받았다.

손흥민은 29일(한국시간) 영국 프레스턴의 팀데일에서 열린 프레스턴 노스 엔드(2부리그)와의 2022~2023 시즌 FA컵 32강전서 두 골을 터뜨려 토트넘의 3-0 완승을 이끌었다.

선발로 출전한 손흥민은 후반 5분 왼발 갑아차기 선제 결승골을 뽑아낸 뒤 후반 24분엔 상대 수비 뒷공간 침투 후 왼발 슛으로 추가골을 기록했다.

올 시즌 손흥민의 공식전 7.8호골이다.

또 지난 5일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크리스탈 팰리스전 이후 공식전 5경기 만의 득점포 재가동이다.

도움 1개를 기록한 지난 24일 풀럼과의 21라운드 이후 2경기 연속 공격포인트이기도 하다.

멀티 득점은 지난해 10월13일 프랑크푸르트(독일)와의 유럽축구연맹(UFA)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D조 4차전 홈 경기 이후 108일 만이다.

프레스턴전서 시즌 7·8호골 폭발
BBC "득점왕 오른 이유 팬들에게 증명"



토트넘 손흥민이 29일(한국시간) 영국 프레스턴 팀데일에서 열린 프레스턴 노스 엔드와 2022~23 FA컵 4라운드에서 멀티골을 성공시킨 뒤 환호하고 있다.

멀티골을 추가한 손흥민은 이번 시즌 공식전 공격포인트를 8골 3도움으로 늘렸다. 손흥민은 승기를 굳힌 후반 40분

브리안 힐과 교체됐다. 토트넘은 후반 42분 최근 영입한 아르나우트 단주마의 패기골로 3-0 승리에 마침표를 찍었다.

유럽축구 통계사이트 후스코어드닷컴은 경기 후 손흥민에게 양 팀 통틀어 최다인 평점 9.07점을 줬다.

손흥민은 이날 총 4차례 슈팅을 기록했는데, 전부 상대 골문으로 향한 유효슈팅으로 연결됐다.

영국 BBC는 "손흥민이 수준 차이를 보여줬다"며 "후반이 시작하고 지난 시즌 득점왕에 오른 이유를 팬들에게 증명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고 극찬했다.

손흥민은 지난 시즌 리그에서 총 23골로 모하메드 살라(리버풀)와 공동 득점왕에 올랐다.

풋볼런던도 손흥민에게 최고 평점을 9점을 부여했다.

그러면서 "손흥민이 영리한 턴으로 멀티골을 기록했다"며 "그는 누구보다 수준이 높은 플레이를 펼쳤다"고 고평가했다.



올스타 '최다 팬 투표상' 김연경과 신영석 29일 오후 인천 삼산월드체육관에서 열린 도드람 2022~2023 V-리그 올스타전 경기, 김연경과 신영석이 올스타 최다 팬 투표상을 수상하고 있다. /뉴스

광양시청 김동현, 아시아선수권볼링 금 개인전 금메달 캐거...5인조 동메달 획득



광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김동현 선수가 지난 7일부터 19일까지 홍콩에서 열린 제26회 아시아선수권 볼링대회에서 금메달(개인전)과 동메달(5인조)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뤘다.

지난해 국가대표로 발탁된 김동현 선수는 올해 광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볼링팀에 입단해 이번 아시아선수권 볼링대회에서 개인전 총점 1605점(예비 267.5)으로 금메달, 5인조 총점 7044점(예비 234.7)으로 동메달을 따냈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아시아선수권 볼링대회에서 금메달로 광양시와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여준 김동현 선수에게 먼저 축하를 전하고 너무 자랑스럽다"며 "앞으로도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이 좋은 환경에서 훈련에 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광양시 직장운동경기부 볼링팀은 지난해에도 가수형 선수를 비롯한 3명의 선수가 국가대표로 발탁된 바 있으며, 1996년 창단해 이춘수 감독, 최복을 코치 등 8명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광양=조준익 기자

KIA 정해영 연봉 2억3천만원·이의리 1억5천만원 계약

박찬호, 1억2천만원에서 8천만원 올라...팀 최대 인상



17일 오후 광주 북구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22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 대 KIA 타이거즈의 경기, 9회초 무사에서 등판한 KIA 바뀐투수 정해영이 역투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가 2023시즌 연봉 계약을 마쳤다. KIA는 29일 "연봉 재계약 대상자 45명과 계약을 마무리했다. 연봉이 인상된 선수는 28명이고 동결 10명, 삭감 7명"이라고 밝혔다.

투수 정해영은 1억7000만원에서 35.3% 오른 2억3000만원에 계약했다. 팀 내 외국인 선수를 제외한 비 FA 재계약 대상자 중 최고 연봉이다.

이준영은 6500만원에서 1억4000만원으로 109% 인상, 팀 내 최고 인상을 기록했다.

이의리도 9000만원에서 66.7% 오른 1억5000만원에 사인하며 입단 3년 만에 역대 연봉에 진입했다.

내야수 황대인은 6500만원에서 100% 오른 1억3000만원에 계약을 맺었다. 박찬호는 1억2000만원에서 8000만원(66.7%) 오른 2억원에 계약해 팀 내 최대 인상액을 받았다.

2022시즌 데뷔한 김도영은 올해 2000만원(66.7%) 오른 5000만원을 받고 뛰었다.

장현식은 2억원에서 1000만원 깎인 1억9000만원에 사인했다.

기사제보 062)363-8800
호남매일 www.honam.co.kr

전남드래곤즈, 인도네시아 국가대표 '아스나위' 영입



전남드래곤즈는 구단 최초로 동남아시아(ASEAN)퍼티이자 현 인도네시아 축구대표팀 소속인 아스나위를 영입했다.

174cm 75kg의 다부진 체격으로 많은 활동량과 빠른 스피드를 갖춘 아스나위(99년생)는 K리그2 전소속 안산FC에서 2시즌 동안 40경기 출전, 2득점, 3도움으로 성공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줬다.

또한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인도네시아 축구대표팀에도 몸담고 있는 아스나위는 기술, 강한 체력과 근성까지 소유한 측면 수비수다. 전남은 아스나위의 빠른 공·수 전환 움직임과 기술력이 이장관 감독의 전술에 잘 녹아들 것으로 평가했다.

부스/농막/컨테이너 맞춤형제작

안되는건 없습니다
원하는대로 제작해드립니다

MK하우징

설치 예정 날짜와 타입만 정해서 연락주세요

타입1. 컨테이너 3X6

타입2. 컨테이너 3X9

타입3. 농막 3X6

타입4. 농막 3X9

타입5. 휴먼부스

맞춤제작

☎ 010-6265-0057

TALK